

노후 자산 처분 및 상속을 둘러싼 세대 갈등

김 은 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I. 서론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사회 여러 분야에서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연금, 노령연금 등에 대한 세대간 사회적 세대갈등은 이미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다각적 대응방안들이 논의 되고 있으나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세대 간 자원의 사용과 이전에 따른 갈등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수준이다.

과거의 가족구조 하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며 노후를 책임지고 그에 따라 부모의 자원이 자녀세대로 상속 또는 양도 등의 형태로 자연스럽게 이전되어 왔으나 현대사회의 핵가족 구조 하에서는 부모세대의 자원이 자녀세대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부모 부양책임 등을 둘러싸고 부모와 자녀세대의 시각차이 등으로 인한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부모입장에서는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소득 없는 노후가 길어짐에 따라 보건의료비를 포함한 노후생활자금에 대한 부담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졌을 뿐만 아니라 길어진 노후는 노후 생활에 닥칠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예측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부모세대는 노후 자산에 대한 상속을 가능한 한 늦게까지 유보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 반면 자녀들은 결혼, 분가 등 필요할 때 상속받기를 원하며 사전상속을 기대하는 경우 부모와 자녀세대의 시각차에 따른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부모세대로부터의 상속에 대한 기대, 자녀세대로의 상속계획과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부모세대의 자산상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른 세대갈등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속을 둘러싸고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의 갈등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 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장자우대 상속을 따랐으며 이 경우 상속을 받은 장자는 호주의 지위와 함께 제사 및 부모부양 책임을 부여받았다. 즉 장자는 부모의 노후재산을 다른 자녀와 차별적으로 상속받음과 동시에 그에 따른 책임으로 부양의무를 가지도록 하였다. 신화용 외(1997)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전통 상속제도의 경우 상속과 부양이 독립적이지 않은 형태로 이루어 졌으며 이러한 의무적 특성과 함께 효 사상을 바탕으로 자녀는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노후에 대한 책임은 가족 안에서 해결하는 가족부양체계를 전통적으로 유지해 오면서 부모세대의 자산은 자연스럽게 부양의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녀세대로 이전되었다고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속제도의 변화를 가져왔고 여성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과 함께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1991년 장, 차남, 아들딸 구별 없이 평등하게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균분상속이 법적으로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상속제도가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장자 및 아들 중심의 상속이 이루어져 왔으며 그에 따라 장자 및 아들이 부양의 책임을 지는 경향이 있었다. 사회적 현상이 제도변화를 즉각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으나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균분상속에 대한 사회적 수용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과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 가족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상속관행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노인들의 부양을 담당해오던 전통적 가족부양체계가 흔들리게 되었다. 즉, 균분상속제도와 같은 제도적 변화와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라 전통적 상속체계 하에서 유지되어 왔던 상속과 부양의 관계는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국가 위기적 화두 속에 노후 부양에 대한 부담은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노후 부양 책임을 더 이상 국가가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석재은(2009)의 연구에 의하면 고령세대일수록 노후부양책임을 가족의무로 여기고, 젊은 세대일수록 노후부양책임을 개인책임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령세대는 아직까지 효사상을 바탕으로 가족부양체계를 기대하지만 젊은 세대는 더 이상 노후부양책임을 자녀세대에게 지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부모를 부양하고자 하는 의식도 젊은 세대일수록 약해지고 있는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자녀세대로부터 노후를 보장받기가 불확실해지고 노후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부모세대의 상속의식도 변화되고 있다. 부모입장에서 늘어난 노후기간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가족부양체계가 해체됨에 따라 독립적인 노후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임돈희 외(2002)의 연구에 따르면 과거의 부모세대와 달리 지금은 본인들의 노후생활을 위해 재산을 갖고 있다가 사후에 상속하거나 재산의 일부만 상속시키려 하는 경향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임돈희 외, 2002).

김기경 외(2001)의 연구에서 서울시 12곳의 노인대학 수강생을 대상으로 상속관련 의식 및 행동을 조사한 결과 사전상속을 한 경우는 약 35%에 해당하였으며 나머지 약 65%는 사전상속을 시행하지 않았다. 사전상속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즉 자신의 노후대책 등의 이유로 사전상속을 연기하거나 유보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저출산·고령화와 사회갈등 파악하기 위한 일환으로 2011년도에 실시된 국민의식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조사 대상은 20세 이상 남녀 3,000명으로

지역, 성 및 연령을 기준으로 지역층화계통추출법에 의거하여 전국에서 선정되었다. 조사방법은 전문조사원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갈등의 유형과 수준에 관한 것이며 이 설문내용 중 재산상속과 관련된 주요문항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2. 분석 변수 및 분석 방법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부모로부터 재산상속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는지(3점척도), 자녀에게 재산상속을 어느 정도 해주려고 계획하고 있는지(3점척도), 평균수명 연장으로 부모가 오래 살게 되면서 상속을 하지 않거나 미룸으로써 가족 간 갈등이 얼마나 발생할 수 있는지(5점척도)에 대해서 조사된 변수를 분석하여 해당 항목에 대한 세대별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용한 통계기법으로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빈도와 평균을 계산하였으며 재산상속기대와 계획, 재산상속에 따른 세대 간 갈등에 동의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연령별 차이를 보기위한 카이스퀘어 분석과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보기위한 Binary logistic regression 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20세 이상의 남녀 3,000명 중에서 이미 재산상속을 받은 경우와 독신 또는 자녀계획이 없어 자녀세대의 상속과 무관하다고 응답한 경우와 관련 변수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은 사례를 제외한 2,033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1> 과 같다. 조사대상자 중 약 49%가 20-30대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55%가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의 58.1%가 월 평균가구소득 371만원¹⁾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1) 2011년 2/4 분기 가계조사에 의하면 월평균 가구소득은 371만3천원인 것으로 조사되어 이를 조사표상 소득구간의 기준으로 삼았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 명)

		Frequency	Percent	Cumulative Percent
성별	남성	1,005	49.4	49.4
	여성	1,028	50.6	100.0
연령	20대	397	19.5	19.5
	30대	602	29.6	49.1
	40대	584	28.7	77.9
	50대	344	16.9	94.8
	60대	84	4.1	98.9
	70대	22	1.1	100.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167	8.2	8.2
	고등학교	755	37.1	45.4
	대학교(대학)	1,016	50.0	95.3
	대학원	95	4.7	100.0
혼인상태	미혼	537	26.4	26.4
	유배우	1,457	71.7	98.1
	기타(사별, 이혼등)	39	1.9	100.0
월가소득	223만원 미만	429	21.1	21.1
	223~297만원 미만	299	14.7	35.8
	297~371만원 미만	453	22.3	58.1
	371~557만원 미만	510	25.1	83.2
	557만원 이상	342	16.8	100.0
취업상태	미취업	86	4.2	4.2
	취업	1,297	63.8	68.0
	학생	145	7.1	75.2
	전업주부	505	24.8	100.0
상속기대도	전혀 기대안함	1,279	62.9	62.9
	조금 기대함	696	34.2	97.1
	매우 기대함	58	2.9	100.0
상속계획	전혀 안해줄 예정	407	20.0	20.0
	조금 해줄 예정	999	49.1	69.2
	최대한 해줄 예정	627	30.8	100.0
상속으로인한 가족갈등 발생	매우 동의한다	340	16.7	16.7
	대체로 동의한다	935	46.0	62.7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534	26.3	89.0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24	11.0	100.0

2. 상속기대도와 상속 계획

분석결과 전체 응답자의 63%는 상속을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65세 이상 응답자의 약 72%가 상속을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미 분석 대상에서 상속을 해줄 부모가 없거나 이미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하였기 때문에 부모세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 전반적으로 상속에 대한 기대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30대 젊은층에 비하여 50-60대의 의 상속기대도가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50-60대의 경우 젊은층에 비해 상속문제에 현실적으로 더 가까이 직면한 대상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의 부모세대가 살아계실 경우 부모세대의 노후문제 및 자산상의 문제로 상속을 기대하지 않는 경우 일 수 있다.

<표 2> 연령별 재산상속을 기대하는 정도 (카이검정) (단위 : %, 명)

연령 ($\chi^2=54.411^{***}$)	상속기대도			Total	
	기대안함	조금 기대함	매우 기대함		
20대	Count	220	162	15	397
	%	55.4%	40.8%	3.8%	100.0%
30대	Count	334	249	19	602
	%	55.5%	41.4%	3.2%	100.0%
40대	Count	390	181	13	584
	%	66.8%	31.0%	2.2%	100.0%
50~64세	Count	299	91	10	400
	%	74.8%	22.8%	2.5%	100.0%
65세 이상	Count	36	13	1	50
	%	72.0%	26.0%	2.0%	100.0%
전체	Count	1,279	696	58	2,033
	%	62.9%	34.2%	2.9%	100.0%

연령변수 뿐만 아니라 타 변수들이 상속기대 유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binary logistic regression 분석을 <표 3>과 같이 추가로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상속기대유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구소득, 연령, 대졸유무, 상속계획, 상속갈등에 대한 동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557만원 이상의 고소득 그룹에 비해서 223만원 미만의 저소득 그룹은 상속기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상속계획이 없는 그룹이 상속계획이 있는 그룹에 비해서 상속기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연령이 낮을수록 65세 이상 그룹에 비해 상속기대도가 높고, 상속갈등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은 그룹은 상속갈등에 전혀 동의 하지 않는 그룹에 비해 상속기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상속기대도가 낮은 사람들은 상속계획도 낮고 상속으로 인한 갈등에 대한 동의

정도도 전반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표 3> 재산상속 기대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Binary logistic regression)

	B	S.E.	Sig.	Exp(B)
성별 (남성)	-0.122	0.102	0.231	0.885
혼인상태				
유배우	0.509	0.409	0.214	1.663
이혼, 사별	-0.243	0.167	0.146	0.785
미혼 (reference)				
가구소득				
223만원 미만	-0.300*	0.172	0.082	0.741
223~297만원 미만	-0.145	0.180	0.420	0.865
297~371만원 미만	0.025	0.160	0.877	1.025
371~557만원 미만	0.135	0.153	0.380	1.144
557만원 이상(reference)				
연령그룹				
20대	0.675**	0.316	0.033	1.964
30대	0.792***	0.274	0.004	2.207
40대	0.384	0.271	0.157	1.467
50대	0.233	0.279	0.404	1.262
60대 이상(reference)				
대졸유무(대졸)	0.437***	0.108	0.000	1.548
상속계획				
전혀안해줌	-2.193***	0.187	0.000	0.112
조금해줌	-0.363***	0.107	0.001	0.695
최대한 해줌(reference)				
상속갈등				
매우동의	0.538***	0.203	0.008	1.712
대체로 동의	0.464***	0.176	0.008	1.591
대체로 동의안함	0.407**	0.187	0.029	1.502
전혀 동의 안함(reference)				
Constant	-0.950	0.381	0.013	0.387

주 : ***0.01 수준에서 유의 **0.05 수준에서 유의 *0.1 수준에서 유의

상속계획에 대한 분석결과 전체 응답자의 약 80%가 상속을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30대보다 50-60대가 상속을 계획하고 있는 비율이 낮게 조사되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상속을 전혀 안 해 줄 예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가깝게 닥친 본인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상속을 유보하거나 상속을 하지 않을 계획을 할 가능성이 있다. 카이검정결과 연령별 상속계획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ordinal logistic regression 결과 상속계획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연령 변수도 타 변수의 조건을 동일하게 했을 때 상속계획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이해될 수 있다.

<표 4> 자녀에 대한 재산상속 계획 (카이검정) (단위 : %, 명)

연령 ($\chi^2=24.548^{**}$)	상속 계획			Total	
	전혀 안 해줄 예정	조금 해줄 예정	최대한 해줄 예정		
20대	Count	68	182	147	397
	%	17.1%	45.8%	37.0%	100.0%
30대	Count	115	281	206	602
	%	19.1%	46.7%	34.2%	100.0%
40대	Count	118	308	158	584
	%	20.2%	52.7%	27.1%	100.0%
50-64세	Count	95	207	98	400
	%	23.8%	51.8%	24.5%	100.0%
65세 이상	Count	11	21	18	50
	%	22.0%	42.0%	36.0%	100.0%
전체	Count	407	999	627	2,033
	%	20.0%	49.1%	30.8%	100.0%

3.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가족 내 상속 갈등

전체 응답자의 약 64%가 ‘평균수명 연장으로 부모가 오래 살게 되면서 상속을 하지 않거나 미룸으로써 가족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에 동의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이에 동의하는 비율은 나이가 많은 세대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나이 많은 세대일수록 상속이 현실적으로 직면한 문제로서 그에 따른 갈등상황을 젊은 세대에 비해서 심각하게 예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재산상속 갈등발생에 대한 동의 정도 (카이검정) (단위 : %, 명)

연령 ($\chi^2=36.200^{***}$)	상속을 하지 않거나 미룸으로 가족 간 갈등 발생여부				Total	
	매우 동의함	대체로 동의함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20대	Count	43	183	112	59	397
	%	10.8%	46.1%	28.2%	14.9%	100.0%
30대	Count	87	289	169	57	602
	%	14.5%	48.0%	28.1%	9.5%	100.0%
40대	Count	110	251	158	65	584
	%	18.8%	43.0%	27.1%	11.1%	100.0%
50-64세	Count	79	158	73	34	344
	%	23.0%	45.9%	21.2%	9.9%	100.0%
65세 이상	Count	21	54	22	9	106
	%	19.8%	50.9%	20.8%	8.5%	100.0%
전체	Count	340	935	534	224	2,033
	%	16.7%	46.0%	26.3%	11.0%	100.0%

상속갈등 발생 동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Binary logistic regression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결과 남성에 비해서 여성일수록, 상속기대도가 있는 사람일수록 평균수명 연장으로 부모가 오래 살게 되면서 상속을 하지 않거나 미룸으로써 가족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변수의 경우 60대 이상의 그룹에 비해서 20대그룹이 상대적으로 상속갈등에 동의하는 경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30-50대 연령 그룹의 경우 60대 이상 연령 그룹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변수의 경우 557만원 이상의 고소득 그룹에 비해 223만원 미만의 소득 그룹과 297-371만원 미만 소득 그룹이 상속갈등에 더 동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일수록, 상속기대도가 있는 사람일수록, 저소득 그룹일수록, 20대 연령 그룹일수록 상속갈등에 동의하는 경향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6> 상속갈등 발생에 대한 동의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Binary logistic regression)

	B	S.E.	Sig.	Exp(B)
성별 (남성)	-0.217**	0.095	0.023	0.805
혼인상태				
유배우	0.665	0.481	0.167	1.944
이혼, 사별	-0.228	0.160	0.154	0.796
미혼 (reference)				
가구소득			0.151	
223만원 미만	0.359**	0.160	0.025	1.432
223~297만원 미만	0.250	0.168	0.137	1.283
297~371만원 미만	0.335**	0.150	0.026	1.398
371~557만원 미만	0.180	0.145	0.213	1.197
557만원 이상(reference)				
연령그룹				
20대	-0.690**	0.287	0.016	0.501
30대	-0.299	0.246	0.224	0.742
40대	-0.250	0.241	0.299	0.779
50대	0.002	0.249	0.993	1.002
60대 이상(reference)				
대졸유무(대졸)	-0.077	0.102	0.448	0.926
상속계획				
전혀안해줌	0.147	0.139	0.292	1.158
조금해줌	-0.003	0.126	0.980	0.997
최대한 해줌(reference)				
상속기대유무(기대안함)	-0.187*	0.103	0.069	0.829
Constant	0.970	0.335	0.004	2.638

주 : ***0.01 수준에서 유의 **0.05 수준에서 유의 *0.1 수준에서 유의

V. 결론 및 논의

본 논문의 분석결과 젊은세대일수록 상속에 대한 기대도, 상속계획, 상속갈등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과 부양의무간의 관계가 많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세대의 높은 상속기대도는 가족내 세대 간 상속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상속의 계획정도를 조사한 결과 세대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상속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속계획에서 세대간 차이를 보면 젊은층에 비해서 상속을 계획하고 있는 비율이 50-60대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젊은층의 경우 상속은 먼 미래의 이야기지만 50-60대의 경우 상속은 현실적으로 직면한 문제로서 이들 세대는 현실적으로 노후보장 등의 이유로 상속을 유보하거나 상속을 하지 않을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젊은세대는 상속에 대한 기대도는 높은 반면 젊은세대의 부모세대에 해당하는 50-60대의 상속계획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향후 상속을 둘러싼 가족내 세대간 갈등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노년기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노후부양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고 저출산으로 인해 가족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노후부양에 대한 자녀세대의 부담은 집중되는 어려움이 있어 한동안 상속과 노후부양을 둘러싼 가족갈등은 사회적으로 심화될 여지가 있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해 한 자녀만 있는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를 분담할 자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은 부양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며 부모세대의 상속에 따른 부양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길어진 노년으로 인해 부모세대는 노후 자산의 일부를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것이고 이에 따른 상속시기와 상속액이 자녀 기대에 미치지 못함으로 인해 가족내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조사대상자의 상당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세대일수록 갈등발생에 더욱 동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족간 상속 갈등이 가시화 되는 상황에서 유일한 자녀가 상속을 받고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노인세대는 노후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상속갈등의 원인은 부모입장에서 보았을 때 부모의 부양기대에 벗어난 자녀의 태도에 있으며 자녀입장에서는 부모의 과도한 부양기대와 기대이하의 상속액 등에 기인한다. 여러 가지 현상을 고려할 때 궁극적으로 점차 전통적 가족부양체계는 사라지고 노후부양은 자녀세대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부모세대로부터 상속을 기대하는 정도도 약화되고 부모세대가 본인들의 자산을 노후생활에 활용하는 것을 당연시 하게 될 것이다. 즉 부양의무가 개인적 책임 또는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되면서 점차적으로 상속과 부양의 연결고리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현재의 가족 안에서 자원이동에 따른 세대 간 갈등은 과도기적인 상황으로 현재의 50-60대 부모세대는 자식에 대한 자원이전을 함과 동시에 부모부양도 해야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자녀에게 노후보장을 확신할 수 없는 과도기에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상속과 부양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해소 방안의 최우선 책은 사회적으로 공적노후부양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다. 공적노후부양체계가 마련된 사회일수록 상속에 따른 부양의무는 약화될 것이고 세대 간 관계는 의존적 관계에서 점차 독립적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이며 저출산 시대에 자칫 세대 간 단절을 초래할 수도 있는 가족갈등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독립적인 노후설계 교육을 통해 부모세대는 재산상속을 통해 자녀에게 노후를 보장받기보다는 우선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경제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재산상속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계획적인 노후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재산상속 또한 계획적인 노후설계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계획적인 노후설계

를 위한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가계재무관리 상담 및 교육제공이 활성화 된다면 좀 더 계획적이고 능동적인 상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참고문헌]

김기경·박혜인, ‘도시 가족의 재산·제사상속 의식과 행동의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269-281.

석재은 (2009), ‘세대별 노후부양관의 차이와 영향 요인’, 보건사회연구 29(1), 163-191.

임돈희·로저 L. 자넬리(2002), ‘한국가족 변화의 의미’ 『비교민속학회지』. 22집:321-336.

신화용·조병은·A.J. Walker(1997),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본 노부모부양과 재산상속의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Vol.15 No.4, pp125-136.

노후 자산 처분 및 상속을 둘러싼 세대 갈등

양 세 정(상명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세대 갈등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가장 주요 영역인 경제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이 연구는 사회적 관심사를 연구주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 이외에, 연구문제 제기와 선행연구 고찰 등에 있어서 논리적인 서술을 전개하고 있다. 아직 연구 초기 단계로 판단되어 이후 완성된 연구결과가 기대되며, 아래 몇 가지 지적을 통해서 그에 일조하고자 한다.

우선 논문제목의 수정이 필요하다. 세대갈등은 이미 연구결과를 시사하는 것으로 제목으로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노후 자산 처분 및 상속도 처분과 상속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다. 연구 목적을 반영한 제목으로 보완했으면 한다. 이와 더불어 서론 부분과 연구방법 등에서 연구목적이 정확히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의견조사 또한 연구자가 직접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서술방식을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의 갈등이라는 표현도 마치 조사 내용이 한 가정 내에서의 부모와 자녀를 조사한 것과 같은 느낌을 주어 마땅치 않아 보인다. 연구제목과 연구목적은 함께 수정, 보완했으면 한다.

분석 변수에 있어 주요변수의 척도를 명확하게 서술한 것은 긍정적이다. 또한 3,000명 중 분석대상을 추출하는 방법도 연구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단 ‘이미 재산상속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였는데 상속은 부모가 사망 후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분석대상에서 연령층이 높은 경우 상속의 기대가 줄어드는 것이 당연해 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젊은 층이 상속에 대한 기대를 더 많이 한다고 적고 있는데 연구결과 해석에 한계가 있는 결과라 보여진다.

<표 3>의 Binary logistic regression에서 종속변수의 조작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표6>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3점, 5점 리커트 척도의 값을 binary로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binary가 타당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한다. 자녀에 대한 재산상속 계획에 대한 regression은 없다. 이유는? 상속 기대유무, 상속계획, 상속갈등 간의 상관관계는? 각기 설명변수도 다변량분석에 포함되고 있는 괜찮은지, 모델의 근거는 무엇인지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가족 내 상속 갈등’ 문장의 경우 원 설문문의 문제일지 모르나 문항구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상속을 미루는 것이 문제일 수 있으나 ‘평균수명 연장으로 부모가 오래 살게 되면서..’는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증여의 문제와도 혼돈되며, 오래 살게 되면서라는

인과관계를 기저에 둔 질문이다.

젊은 층의 부모는 상대적으로 젊은 부모이기 때문에 재산상속의 갈등발생의 여지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동일한 이들이 다시 나이가 들고, 그들의 부모가 나이가 들게 되면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연령층에 따른 상속갈등, 상속기대 등에 대한 결과를 비교 해석하는데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